

등록번호	수산자원연구소-3388
등록일자	2019. 04. 30.
결재일자	2019. 04. 30.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연구사	수산자원조성담당	지방서기관	
김동우	이의진	2019. 4. 30.	신정만
협조자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19 어린해삼 방류 결과



2019 어린해삼 방류 결과

해양환경 변화 및 남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우리연구소에서 생산한 우량의 어린해삼을 관내 어장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획량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1

어린해삼 방류 개요

- 방류일자 : 2019. 04. 19(금)
- 방류품종 : 어린해삼
- 방류크기 : 평균체중 1.87g
- 방류수량 : 20,000미
 - 어린해삼 평균 체중 : 1.16g
 - 어린해삼 총 무게 : 37,760g
 - 방류수량 : $37,760 \div 1.87 \approx 20,225$ 마리
- 방류해역 : 옹진군 영흥면 길마섬해역
- 해삼운송 : 비닐 포장 운반 후 대상 해역 방류
- 방류방법 : 도보로 방류해역 이동 후 방류

2

참 석 자

- 연 구 소 : 수산자원연구소장 외 4명
- 어 촌 계 : 내리어촌계장 및 어촌계원

3

표본측정 및 방류수량 검수내역

○ 표본 측정 결과

순 번	체 중(g)	순 번	체 중(g)	순 번	체 중(g)
1	3.21	11	1.01	21	1.17
2	2.14	12	2.36	22	1.36
3	1.03	13	1.23	23	1.26
4	1.52	14	2.14	24	1.32
5	3.36	15	1.05	25	1.68
6	3.11	16	1.38	26	1.48
7	1.17	17	1.55	27	1.36
8	7.15	18	2.17	28	1.54
9	2.11	19	1.48	29	1.49
10	1.16	20	1.47	30	1.55

※ 평균체중 : 1.87g [최소 : 1.01g, 최대 : 7.15g]

○ 방류수량 검수

계량회수(회)	총무게(g)	개체당 평균 무게(g)	방류수량(미)
6	37,760	1.87	20,22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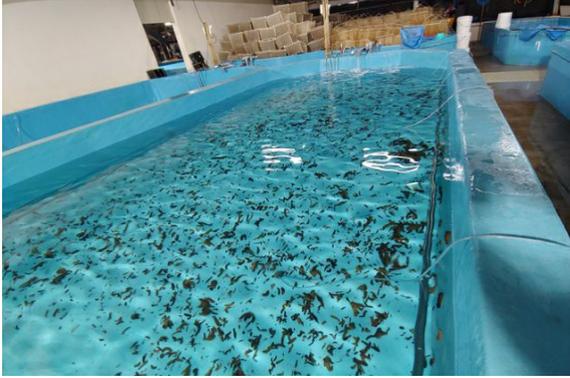
어린해삼 방류해역도



어린해삼 방류 해역(●)

5

어린해삼 방류 사진 및 보도자료



어린해삼 채집 준비



어린해삼 포장



방류해역 이동준비



방류해역 도착



어린해삼 방류



어린해삼 방류

○ 아주경제

[영종도의 하루] 명소 / 음식 / 가족(애) / 자유 사진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연안마을어장 소득증대를 위한 '어린해삼' 방류 실시

(인천)박용서 기자 | 입력 : 2019-04-22 09:21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신정만)는 인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난 19일 우량의 어린해삼 1만5천마를 용진군 영흥면 길마섬 해역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 할 어린해삼은 지난해 5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하여 겨울철 가온사육한 후 전염병 검사들 마친 채중 1~7g 크기의 우량한 어린해삼이다.

해삼은 정착성 어종으로 방류 후 이동거리가 짧고 생존율이 높아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 중 하나이며, 방류 후 2~3년이면 마리당 200g까지 성장하고 재포획 되는 회수율은 10~40% 정도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뉴스

- 선거제공수처 330일 테스트 트랙 열자 출범, 임박했나?
- 생수값도 올랐다...GS25 품물 리스 가격 인상
- S&P500 최고치 경신...뉴욕증시 상승 마감
- 신속발라 전세대를 이자비 지원 할수...정말 한 거 맞
- '3년간 1000억 적자' 한화결리더이연세침 ㅁ 달는다

○ 경기신문

경기신문

워렌버핏이 4억 주 갖고있는 주식? 바로 그 주식 주의 밝기

HOME > 인천

용진 길마섬 해역 어린 해삼 1만5천마 방미

박용서 기자 | 2019.04.21 19:23 | 댓글 0 | 7면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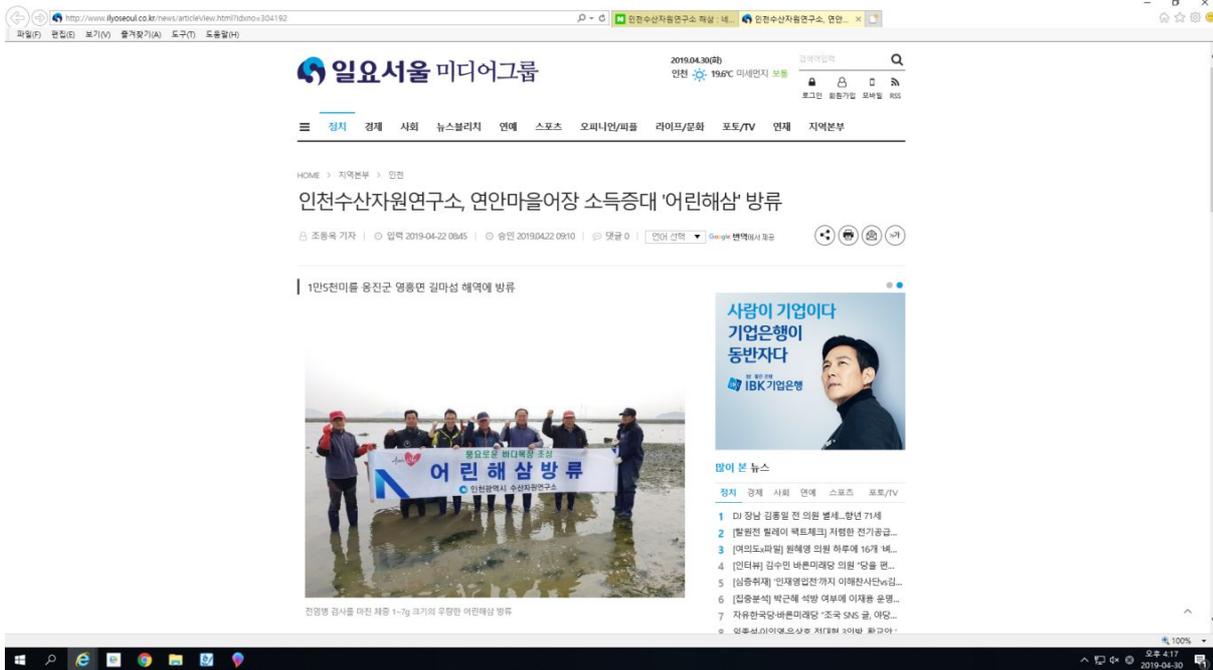
어린해삼 방류

인기기사

- 수원시부흥-원전 서수원지서 공동체지원 구..
- 꽃게잡이 실,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 종말경쟁대회 참가할 종말분양주 찾습니다
- 동구 수산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주민들 '업..'
- 잊지 말고... 나날 앞장선 다산 새마을금고
- 내달 1일 근로자의 날, 동구 공무원 포상류..
- 선거법 위반 배군기 용인시장 장여6월 구형
- 내,5월 도내 공동주택용지 34만㎡ 공급
- 강화-화진, 천선 지중화 입 업무협력
- 수소차 131대 보급 → 1255천억원 경제 효..

최신기사

○ 일요서울



○ 메트로신문



등록번호	수산자원연구소-8672
등록일자	2019. 11. 13.
결재일자	2019. 11. 13.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연구사	수산자원조성담당	수산자원연구소 장	
		2019. 11. 13.	
정남주	정은주	강영식	
협조자	운영지원담당 문동현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19 해삼 방류 완료 보고



2019년 해삼 방류 완료 보고

해양환경 변화 및 남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우리연구소에서 생산한 우량의 어린해삼을 관내 어장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획량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I 사업개요

- 방류일시 : 2019. 11. 12(화) 10:30
- 품종 및 사업량 : 어린해삼 15만미 (체중 1g 이상)
- 방류해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해역
- 운송방법 : 포터트럭(1t) 1대, 선박 1대
- 방류방법 : 선상방류

II 방류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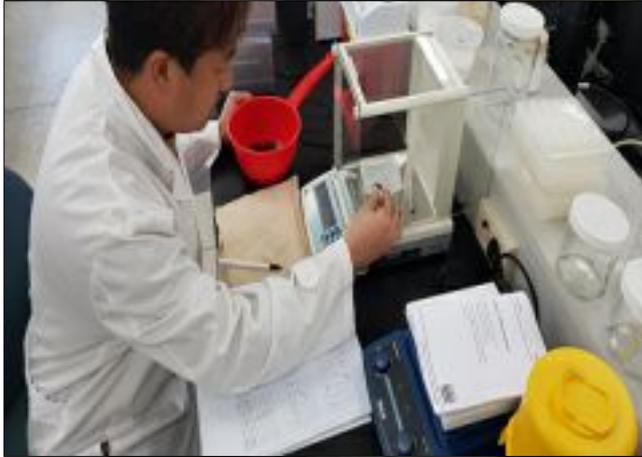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해역(2019. 11. 12)

시 간 별	추진 일정	비 고
08:00 ~ 09:00	포획 및 수량파악, 포장	
09:00 ~ 10:30	이동(연구소 ⇒ 옹진군 덕적해역)	참석자 개별 이동 집결
10:30 ~ 12:00	방류	
13:00 ~ 15:00	이동(옹진군 덕적해역 ⇒ 연구소)	

Ⅲ 행정사항

- 교통편 : 관용차(방류물품 등 운송)
- 방류 차량 : 포터트럭 1대(어린해삼 운송)
- 방류 선박 : 경영호
- 방류 홍보 : 홍보자료 해당부서 통보 및 보도자료 협조요청(대변인실)
- 기타 홍보 : 홍보용 플래카드 부착(방류 선박)
- 사후 관리
 - 방류 후 관할 수협 및 어업인들에게 방류 내용 및 자원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방류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IV 방류사진



어린 해삼 무게 측정



어린 해삼 무게 측정



어린 해삼 무게 측정



어린 해삼 채포 작업



어린 해삼 채포 작업



어린 해삼 채포 작업



어린 해삼 포장



어린 해삼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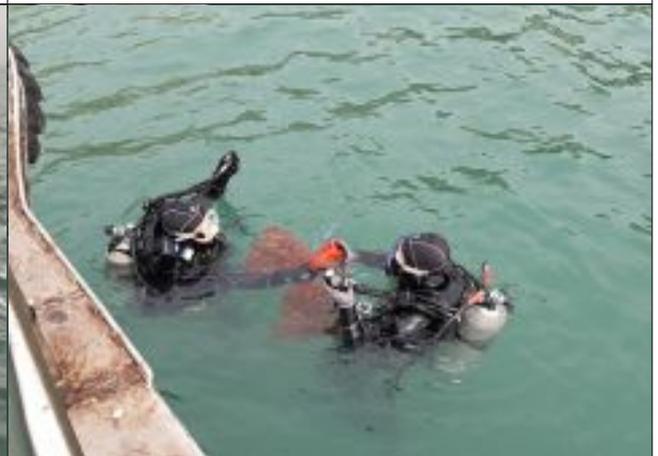
어린 해삼 상차



어린 해삼 상차



어린 해삼 방류



어린 해삼 방류

V **보도자료**

기호일보

2019년 11월 13일 (수) 2019년 11월 13일 (수)
종합 03면

경기일보

수도권 14면

시민일보

2019년 11월 13일 (수)
수도권 09면

**인천시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주민 부담비용 추가 지원 등 검토**

인천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피해 금액의 최소 52.5%에서 최대 92%를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여기지 못한 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부터 시민 스스로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다.

파손 정도에 따라 정책으로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된다.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신속한 복구를 도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도 전국에 확대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공장·상가, 건물 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험료의 34%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지난 2월부터 미추홀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부담 보험료 추가 지원사업’을 타 구·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풍수해보험 지원 상담 및 가입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하면 된다.

김혁연 기자 khy@koho.co.kr

**수산자원연구소 어린해삼 방류
인천 연안 수산자원 회복·조성**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12일 자체적으로 키운 체중 1g 이상의 어린 해삼 15만마리를 옹진군 덕적면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인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린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방류한 어린 해삼들은 지난 6월 성숙한 이마로부터 수장단을 생산해 실 내에서 약 2주 간의 유생사육과 전염병 검사까지 마친 상태다.

해삼은 정작성 어종으로 바다의 인삼으로 불릴 만큼 사포닌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 좋다. 방류 이후에도 이동거리가 짧고 생존율도 높아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꼽힌다. 특히, 2~3년이면 체중이 200g까지 성장하고, 회수율 역시 30~40%에 달해 어린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천에서 자란 해삼의 경우에는 상품성을 결정하는 돌기가 잘 발달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 또 바다의 유기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환경을 정화하는 등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영식 소장은 “인천 연안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삼 외에도 비지락, 참돔치 등 어종을 11월 중 방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품종의 새로운 서식지를 개발해 어민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민지

인천신보, 재도전자원 특례보증실적 전국 최고

41곳 10억 지원... 컨설팅등 큰 호응

인천신보보증재단(이하 인천재단)이 설립한 소상공인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재도전자원 특례보증 지원실적이 41개 업체에 10억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18개 지역재단에서 올해 취급한 28억원 중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성 심사 등을 거쳐 지원한다. 자금지원 외에도 재기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연계지원하여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 상담지원하는 이러한 재기사업자의 호응에 받았던 내년 목표치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재기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재도전자원 특례보증은 지역재단으로부터 보증자원을 받은 업체 중에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재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 및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종료한 법인세무 종결기업 등을 대상으로 재기자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및 도

인천=인천시 기자 mcs@mininbo.co.kr

인천일보

2019년 11월 13일 (수)
종합 01면

**첫 의제 ‘자체 매립지’
공론화 추진방식 발표**

공론화위, 시민 3000명 인식조사·권역별 숙의과정 등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첫 의제로 채택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인천형 공론화 모델’ 설계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303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결과물을 내놓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제5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번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의 공론화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윤곽을 드러낸 인천형 공론화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의제에 대한 인식 조사가 진행된다. 302만7268명(8월 말 기준)의 일정 비율로 상징적 숫자인 303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과정도 거친다. 숙의는 폐기물 관리 정책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구분해 실시되고, 최종적으로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린다.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는 내년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론화위는 법률·조사·숙의·소통 등 4개 분야로 나뉜 총 9명의 추진위원회를 연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등을 내행하는 기관도 입찰을 거쳐 올해 안에 선정된다.

수도권매립지 대신 인천만의 폐기물을 별도 처리하는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공론화 안건은 박난현 시장이 직접 제안했다. 원혜옥 공론화위원장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지역사회·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 전원 합의로 공론화 추진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를 거쳐 권고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된다. 시 시민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90일에서 최장 150일간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은 기자 isun@incheonilbo.com



전체 메트로인 시민교육 Job&에듀 트윙뉴스 기획연재 뉴스 경제 오

사회 > 사회일반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어린해삼 방류 실시

등록시간 : 2019-11-12 12:02:08

- 인천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증대 기여



▲ 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 수산자원연구소는 인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2일 우항의 어린해삼 15만마리를 자체 생산해 음진군 덕적면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해삼은 지난 8월 상륙한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실내에서 약 2주간의 유생사육기간을 거쳐 4개월 동안 사육한 후 전염병 검사를 마친 체중 1g(1cm 내외) 이상 크기의 우항한 어린해삼이다.

해삼은 정착성 어종으로 방류 후 이동거리가 짧고 생존율이 높아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 중 하나이며, 방류 후 2-3년이면 마리당 200g까지 성장하고 재포획 되는 회수를 30-40%정도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삼은 바다의 인삼으로 불릴 만큼 사포닌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 좋고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며, 소화기 활동과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인기가 높다. 또한, 바다의 유기물을 먹기 때문에 환경을 정화하는 등(일명 바다의 흡수부)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해삼은 전 세계 해삼의 약 20%를 소비하는 중국내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해삼을 중 하나로 인천지역의 해삼은 상품성을 결정하는 물기가 잘 발달되어 있어 가격경쟁력이 높으며 달린 견해삼의 경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자체생산한 정종어 19만 마리(갈매군 황산선화항), 칠물해삼 2만 마리(음진군 양촌면 갈마섬), 꽃게 221만 마리(음진군 연립도 및 대술도), 주꾸미 46만 마리와 갈조기 13만 마리(음진군 자철도 및 영종도, 강화군 주릉도, 송주 삼동)를 방류하였고, 7월 조피볼락 46만 마리, 참조기 16만 마리(송주 우리도, 강화군 후포항, 음진군 연립도)과 치어를 방류하는 등 총 362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갈매식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삼 외에도 바지락, 참돔치 등 어종에 대해 11월 중 방류를 실시 할 계획"이라며 "고부가가치 품종의 새로운 서식지를 개발하여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뉴스레터

UPDATED: 2019-11-13 10:00 I

전체 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비주요뉴스 오피니언 자대방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HOME > 사회

인천수산자원연구소, 연안 수산자원 조성 위한 '어린해삼' 방류

☞ 서현욱 기자 | ☞ 승인 2019.11.12 18:39 | ☞ 댓글 0



▲ 인천광역시청

- >> 6cm 작은 성기볼, '이것'으로 12cm까지?..송...
- >> "관절염" 14일만에 사라져, 병원의 필요있다?
- >> 이번주 토요1등 예상번호 "3,11,27,29.."

[뉴스레터]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인천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12일 우항의 어린해삼 15만마리를 자체 생산해 음진군 덕적면 해역에 방류했다.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이번에 방류한 어린해삼은 지난 6월 상륙한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실내에서 약 2주간의 유생사육기간을 거쳐 4개월 동안 사육한 후 전염병 검사를 마친 체중 1g 이상 크기의 우항한 어린해삼이다.

해삼은 정착성 어종으로 방류 후 이동거리가 짧고 생존율이 높아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 중 하나이며 방류 후 2-3년이면 마리당 200g까지 성장하고 재포획 되는 회수를 30-40%정도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삼은 바다의 인삼으로 불릴 만큼 사포닌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 좋고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며 소화기 활동과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인기가 높다. 또한, 바다의 유기물을 먹기 때문에 환경을 정화하는 등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해삼은 전 세계 해삼의 약 20%를 소비하는 중국내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해삼을 중 하나로 인천지역의 해삼은 상품성을 결정하는 물기가 잘 발달되어 있어 가격경쟁력이 높으며 달린 견해삼의 경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자체생산한 정종어 19만 마리, 칠물해삼 2만 마리, 꽃게 221만 마리, 주꾸미 46만 마리, 갈조기 13만 마리를 방류했고 7월경에 조피볼락 45만 마리, 참조기 16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총 362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갈매식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삼 외에도 바지락, 참돔치 등 어종에 대해 11월 중 방류를 실시 할 계획"이라며 "고부가가치 품종의 새로운 서식지를 개발하여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